

동북아 중심대학으로 발돋움

-POWER 전북대학교-

전 북지역의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학교는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수의 연구력은 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각종 국가재정지원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교육 혁신을 통한 커리큘럼 운영과 세계교육기행, 해외봉사단, 해외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실력 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유능한 인재가 배출되고 있다. 아울러 인재의 산실인 우림인재등용관, 최고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성원법학도서관, 국내외 방문학자의 영빈관인 훈산건지하우스가 지역 기업과 동문 인사의 기증으로 세워져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서 전북대학교의 위상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고의 시설을 갖추게 될 BIC 개념의 디지털 도서관, 최신식 다목적 박물관, BTL 방식의 대형 생활관 등이 건축될 예정이어서 최고의 교육 편의시설을 갖춘 대학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밖에도 2002년도에 확보한 이서 종합연구단지, 전라북도 혁신도시의 한 중심축으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전북대학교는 전북의 밝은 미래를 여는 새만금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허브로서 역할을 통해 동북아 중심대학의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의 새로운 에너지로 받아들여져 전북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



동북아 중심대학의 허브

- 다양한 특성화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주도

전북대학교는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대학의 특성화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에너지 관리공단(산업자원부)의 수소·연료전지 특성화 대학원사업에 선정돼 5년간 매년 5억 원씩 지원받게 됐다. 이밖에 전북대 TIC와 발효식품엑스포, 전북대 햄 등은 지역산업과 연계해 발전함으로써 분야 1위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⑤ 수소·연료전지 특성화 대학 선정

전북대학교는 에너지관리공단(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수소·연료전지 특성화 대학원 설립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핵심 R&D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장비 구입 지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연구 지원을 비롯해 관련 산업체 직원들의 위탁교육을 매년 5억씩 5년간 지원을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북대학교에 유치된 학부학생 양성을 목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누리(NURI) 사업단과 연계하여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의 핵심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 대학원을 IPHE(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국제기구,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Economy)와 연계하여 국제 수소·연료전지 교육네트워크의 아시아지역 거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히 전북을 수소·연료전지의 교육 거점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도 일치해 전북대학교가 전북지역 전략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⑤ 전북대 TIC, 전북 자동차 부품·금형산업의 핵심

전북대학교 TIC는 전라북도가 지정한 21세기 핵심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 부품·금형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 전주시, 대학, 지역산업체가 힘을 모아 출범시킨 산·학·관 공동협력 기술혁신센터다.

TIC는 산업자원부가 매년 실시하는 중간평가에서도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 왔으며 지난해 최종년도 사업평가에서는 지원사업 기간이 종료된 20개의 TIC 중에

서 1위를 차지해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대 TIC는 그간 도 내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지원 및 지도 200여 건, 자동차 부품 및 금형·기계 분야 전문 설계 인력양성 146강좌 2,163교육, 미취업자 및 이공계대학생 현장 실습교육 400여 명, 기계 및 자동차 부품 분야 R&D 총 50여 건을 수행해 왔다.

특히 (구)전북기능대학 부지에 도내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범단지인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를 조성했으며, 2004년에는 16개 업체 입주, 고용인원 166명, 매출액 145억 원의 성과를 올렸다.

이를 토대로 전북대 TIC는 산업자원부의 지역진흥사업인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와 '전북테크노파크'를 유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그동안 기계·자동차 산업이 전북지역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2010년 '기계 분야 특화기술을 보유한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CAMTIC VISION'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자립 기반 구축, 4대전략 부분 R&D역량 강화,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⑤ 산학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IFFE)는 전북대학교와 전라북도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최초의 발효식품 관련 행사로 지역 내 최고의 행사로 꼽히고 있다.

IFFE는 국내의 유명한 발효식품 업체에서부터 우리 농산물로만 만든 전통 발효식품, 아이들이 좋아하는 퓨전 발효식품인 청국장 아이스크림 등과 함께 국내에서 만나기 힘든 해외

50개 업체도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이다.

그 행사의 중심에 전북대학교가 있으며 발효식품 산업의 잠재력과 부가가치 창출을 지역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산업체와 대학 간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산학 활동에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발효식품의 효능을 검증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발효와 발효산업이 갖는 학술적, 경제적 의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참여 업체의 판매촉진을 위해 자원 봉사도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영노하우를 직접 배우고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고용창출까지 이루는 다중효과를 거두고 있다.

2003년 처음 개막한 IFFE행사는 지난해 B2B(구매 및 수출상담)실적이 첫 회 116억 원에서 302억 원으로 증가하고 수출계약도 전 해에 비해 45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 업체 참가규모와 관람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확실한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나는 초석을 쌓았다.

올해에도 제4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이며 250개 업체와 300개 부스가 참가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 전북대 햄, 2년 연속 우수 학교기업

학교기업으로 출범한지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전북대 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기업지원사업'에 2년 연속 우수 학교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억 8천여 만 원 등 3년간 12억 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고 1억 원은 학생들의 취업촉진활동, 인턴사원, 해외·국내 연수 지원 등에 투자해 현장실습과 실무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상과대학 및 공장 시스템 제조를 위한 공대의 상업공학과, 농생대의 동물자원학과, 생활대의 식품영양학과 등과 연계해 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전북대 햄은 운영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돼 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으며, 비인기 식육부위의 제품화로 돼지가격안정 및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학내에 50평 규모로 신축한 '델리' 매장에서는 자체 생산한 햄과 소시지,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전북대 햄 '델리'는 하루 평균 200여 명에 이르는 방문객과 하루 평균 150만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차별화된 세계화 프로그램

- 교육의 세계화, 직접 경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전북대학교의 세계화 프로그램은 다른 수도권 대학의 여느 프로그램에 뒤지지 않는 알찬 내용들로 가득하다. 세계라는 무대에서 직접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교육기행과 봉사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해외 봉사단, 해외 현장실습을 위한 해외인턴사업제, 각종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해외 탐방 등 다양한 분야별로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④ 글로벌형 인재양성을 위한 新신사유람단 파견

전북대학교는 최근 기업체에서 현장실무 유경험자와 글로벌 인재를 우대함에 따라 해외 기업체와의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재학생들에게 해외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올해 처음 선발된 2006년도 1학기 해외현장 실습단은 중국 7명, 아랍에미리트 2명, 베트남 2명의 재학생이 선발됐으며, 지난 3월 해당 국가로 출국했다. 이들은 20주간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현장실무 경험과 해외시장에 대한 인식 및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을 하고 돌아오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협력을 통한 유대강화뿐만 아니라 기업은 인턴학생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학생은 해외현장 경험과 해외시장에 대한 인식 및 언어습득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④ 해외로 이어지는 전북대인의 봉사 손길



전북대인의 다양한 봉사활동은 세계에서도 이어진다. 전북대학교는 동북아중심대학해외봉사단, 해외의료봉사단, PAS청년해외봉사단,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봉사단 등의 다양한 봉사단을 매년 방학마다 파견하고 있다.

특히 해외봉사단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공모제 형식의 모집을 시행해 학생들이 봉사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획·일정·예산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4개 팀 선발에 15개 팀이 지원해 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봉사단을 8개 팀으로 확대 선발하였다.

해외봉사단은 개발도상국의 여러 나라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국제경험 확대와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글·영어 교육과 판소리나 사물놀이 등의 전통문화 전파, 각종 기기 보수 및 풍선아트나 음악교실 등의 오락 분야로 나눠 봉사한다.

해외의료봉사단은 1999년 이후 매년 방글라데시에 파견하는 의료봉사단으로서 진료와 보건교육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매년 의료진 3명을 포함해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파견된다.

④ 지원팀을 22개로 대폭 확대한 세계교육기행

전북대학교는 21세기 열린교육의 실현과 체험을 통한 생동감 있는 교육 및 의욕에 찬 도정전신함양으로 세계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세계교육기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탐방대 수를 기존 15개 팀에서 22개 팀으로 크게 늘려 지원하기로 했으며 총 33개 팀이 지원했다.

학생들은 4명 이내의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한 후 우리나라와 대학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주제를 선정해, 해외의 상황을 탐방하고 개선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탐방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팀원 간의 의사소통과 다양한 정보 수집, 탐방 일정 및 예산계획의 적합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외 탐방으로 인한 글로벌 마인드의 함양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팀워크, 문제해결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누리, BK21, TI 사업단 주관 연수단 파견

학생들의 해외 경험 기회는 학생처에서 주관하는 연수 및 봉사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단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누리사업단의 필리핀어학연수단, GM연수생 파견과 BK21사업단의 캐나다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TI사업단의 중국 상해 해외 현장실습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저렴한 경비로 어학연수 및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신(薪)교육과정 도입

- 능동적 교육을 통한 경쟁력 향상 추구

전북대학교의 교육은 특별하다. 다른 대학에서 시도하지 않은 다양한 교육방식을 채택해 학문적 발전과 교육적 가능성을 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PBL (Problem Based Learning)' 중심의 교육방식이 있다.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돼 문제를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획기적인 이 교육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면 도입한 것으로 타 대학에 비해 전북대학이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공대 공학교육인증제 도입 추진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은 국제적인 공학도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인증제' 도입을 추진하며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대는 2005년 7월 공학교육인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신입생부터 13개 프로그램에 공학교육인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2006년 신입생은 개정된 교과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해 학생들은 수학, 과학, 컴퓨터 분야에 이르는 기초 학문

을 필수적으로 이수함으로써 공대생으로서의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게 됐으며, 수강신청부터 졸업할 때까지 담당교수의 자문을 받고 수업도 일대일 형식으로 진행돼 탄탄한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학교육인증은 신청하면 바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예비실행을 한 후, 그 실적을 평가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북대학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5~6월경에 인증을 신청하고 2008년에는 인증을 취득하겠다는 방침이다.

|| 해외봉사단 체험기 ||

경계 없는 드넓은 초원서 한계 잊고 기상을 배우다.

- 태권도 한글 등 한국문화도 전달 배움 열정도 인상적

한준희(신소재공학부 3학년)
14박 15일의 몽골 해외봉사활동

'제1기 몽골 해외 봉사단'의 여정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처음이라는 부담감과 짧은 준비 시간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팀원들이 응집하는 데 힘이 됐다. 열흘 간 매일 모여 태권무나 한글 교육 등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드디어 7월 12일 '붉은 영웅'을 뜻하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로 향했다. 걱정과 우려로 가슴 졸이던 팀원들의 마음은 어느덧 기대와 열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우리가 탄 낡은 버스는 비포장 도로 위를 뒹뚱거리며 첫 번째 봉사활동 장소인 지그깃트로 이동하고 있었다. 지그깃트는 울란바토르에서 약 30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작은 언덕과 집들이 웅기증기 모인 작은 마을이다. 푸른 빛깔의 초원과 하늘 중간에 자리잡은 집들은 그야말로 자연과 하나된 장관을 연출했다.

드디어 우리에게 첫 임무가 주어졌다. 그동안 관리가 전혀 안 돼 무성한 잡초들에 둘러 쌓여 제기능을 상실한 농구장을 본연의 역할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다.

잡초 하나하나를 봉사단이 손수 뽑아야 했고,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 바닥을 미장해 나갔다. 교박 하루가 지나고 꽤 근사한 모습으로 변신한 농구대 한켠에 '전북대학교 해외봉사단'을 새겨 넣으면서 다른 이들을 위한 노동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공을 들였던 야르막에서의 교육봉사는 기대 이상으로 호응이 좋았다. 사물놀이를 앞세운 홍보로 막을 올린 교육봉사는 한글반, 영어반, 태권도반, 공예반 등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진행됐다. 교육장소로 제공받은 예배당이 마을 아이들과 주민들로 가득 찰 정도로 한국에 대한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한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수업시간 30분 전부터 자리를 채우는 등 배움에 대한 열정을 과시했다. "더 더 더..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에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도 배움을 게을리 했던 나의 모습이 비춰져 가슴이 뜨끔거렸던 것이다.

떠나올 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건 당연한 이치라 여기며 담담해 하려 했던 결심은 뽀뽀뽀뽀한 글씨로 "꼭 다시 와달라"고 쓴 아이들의 편지에 '작심삼분'이 되고 말았다.

일상으로 돌아온 나에게 한 가지 달라진 것이라면 바로 무슨 일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배움의 열의를 불태운 아이들의 모습이 자극을 받은 것부터, 말을 타고 몽골의 끝없는 초원과 푸른 하늘 사이를 가로지르던 순간까지. 몽골에서 품었던 세상이 가슴 한 편에 그려져 있기에 말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취업 관리 프로그램

- 맞춤형 관리를 통해 알찬 미래를 설계

학생들의 진로는 단순히 주어진 사회적 틀 안에서 맞춰가는 것이 아니다. 학생 스스로 당당히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취업통합시스템인 진로개발지원센터가 지난해부터 가동됐다. 진로 탐색부터 경력개발까지 체계적으로 개개인에게 맞춤형 지도를 해주는 취업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⑤ 취업통합시스템, 진로개발지원센터 가동

전북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진로개발지원센터를 신설했으며,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진로개발지원센터는 장학취업과의 취업팀과 학생서비스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통합해 기존에 단편적으로 도움을 주던 기관들을 취업지원이라는 하나

||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연 치의학전문대학원 ||

국내 최초 PBL교육방식 도입 ... 능동적 학습 성과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05년 첫 신입생을 받은 이후 치의학교육의 세계적 동향에 맞춘 새로운 교육방식을 전면 도입해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6개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이 개설돼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는 소규모 강의실을 비롯해 중앙 관리식 커리큘럼, 강의시간 축소, 정원을 40명으로 제한시켜 소수그룹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갖춰 왔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교과과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왔고, 2003년에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뤄지는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중앙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유연한 커리큘럼 조정이 가능해졌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전 교육과정을 PBL (Problem Based Learning)방식으로 전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전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 PBL 교육의 운영

우리 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중앙에서 연간 약 8개의 모듈을 정하면 5~6개의 파트로 구성된 하나의 사례를 학생들이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업 자체가 소단위 그룹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학년당 8명씩 한 조를 이루고 한 명의 facilitators가 각 조에 배치되는데, facilitators는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학생들은 주어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들을 개별적으로 분담해서 조사해 온 후 발표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토론하는데, 이 때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서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분기별로 조 구성이 새롭게 되며 보통 하나의 모듈이 끝날 때 내용 정리를 비롯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과 동료들 평가를 하고, 교수와 학생 간의 평가도 함께 진행한다.

의 맥락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한 취업관리시스템으로 취업입사지원과 진로 개발을 담당하는 진로 개발부와 각종 상담검사 및 진로직업상담을 하는 상담부,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은 운영지원부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진로개발지원센터는 진로, 취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각종 검사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진로 설계와 취업지원까지 맡고 있다. 또한 각종 인·적성검사와 진로·취업지도를 연계하였는데 이는 분업화된 업무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단순히 취업에 대한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취업활동에 일관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전북대 학생 기 살리기'라는 모토로 취업캠프 및 각종 특강, 캠퍼스 리쿠르팅, 채용설명회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④ 취업캠프 학생 참여·호응 높아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캠프가 점차 학생들의 경험담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은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지만 취업캠프에 다녀온 학생들의 수기와 게시판 글 등을 통해 점차 학생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지난 2006년 1기 취업캠프에서는 신청인원이 초과됐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교과적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평가도 통합적인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고 과목별로 해당하는 부분에 나눠서 점수를 매긴다. 전 학년의 학습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연 3번 정도는 4개 학년이 같은 문제를 동시에 시험보기도 한다.

이같은 수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업 외 개별학습 시간이 필수적이므로 기존 주 40시간 정도 강의로 이뤄졌던 시간표를 강의는 주 3시간으로 줄이고, 그룹식 수업과 실습시간 외에 개별학습 시간으로 편성했다.

▶ 새 교육방식에 대한 반응

지난 2005년 우리 학교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PBL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90%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중앙 관리식 교과목 운영으로 교수 배정이나 새 과목 설감이 유동적이고, 통합교과적 학습으로 교과서적인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이 PBL 중심의 교육에 만족하고 있었다.



조별학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팀워크가 향상되고 스스로 공부하기 때문에 지식도 쌓이는 통합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

치의학전문대학원 박병건 원장은 “우리 대학에서 최초로 시도한 방식인데 긍정적인 면이 많고 학생들이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전문대학원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까지 전면 확대시킬 계획”이라며 “다른 학과에서도 일정 부분이라도 도입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캠프에 100% 참석률을 보이기도 했다.

취업캠프는 실전모의면접과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실전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특강 등을 마련함으로써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전모의면접은 실제 면접을 시행하는 인사 담당자들을 초청해 미리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바탕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되며, 면접 후 학생들에게 취약한 점이나 올바른 면접 법 등에 대한

조언도 함께 이뤄져 학생들에게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보다도 호평을 받았다.

|| 취업캠프 체험기 ||

“취업정보도 얻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 각종 특강 및 모의면접으로 자기계발 기회

이충현(법학과 3학년)

화창한 금요일 오후 진로개발센터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첫 취업캠프를 1박 2일간 다녀왔다. 첫날 오후에는 ‘효율적인 입사서류 작성법(이력서/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과 ‘성공적인 스피치, 프리젠테이션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저녁식사 후에는 ‘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즐거운 게임과 댄스시간을 통해 참가자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끼를 발견하고, 팀 간의 구호와 화합을 이뤄가면서 최근 떠오르는 기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진 식당에서의 맥주파티!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들과 건배를 하고, 같은 입장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소개 및 게임을 하면서 허물 없이 취업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토요일에는 장재성 대학과 미래 대표이사님이 ‘면접’에 대한 집중 설명을 해주셨고, 이어서 ‘자기연출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강연을 통해 스스로

잘못된 이미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제일 앞자리에 앉은 덕에 강사분 도우미로 발탁되어 자주 웃지 않고 무표정한 채로 지내왔던 그동안의 모습을 교정 받았지만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느끼며 첫인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

‘모의면접’ 시간에는 나름대로 경력도 많이 쌓고 면접 경험도 있어서 별 스스럼 없이 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면접관의 날카로운 지적에 고개를 다시 한번 숙이는 기회도 얻게 됐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학교로 다시 돌아올 때 학교버스 안은 삼삼오오 이야기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다. 취업성공을 위한 특강과 정보자료의 유용성 이외에도, 취업을 위해 저마다 애쓰고 있던 숨은 인재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 의미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겼던 시간들은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철저한 준비만이 자신감을 키워주죠”

- 발표수업 · 취업캠프 적극 활용 면접 노하우 축적

오상윤(경제학과 98학번)
5대 주요 기업 동시 합격



보통 지방대학생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대학생들은 자신감을 상실하고 대기업은 오르지 못할 나무라며 지레 겁먹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지방대생은 기준부터 다르니까’라는 생각에 한숨만 쉬는데, 이를 극복하고 당당히 국내 5개 주요 기업에 합격해 굳게 닫힌 취업문을 열은 사람이 있다. 현재 SK네트웍스 서울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오상윤(경영, 06년 졸업)씨가 바로 그 주인공, 그만의 특별한 취업 성공기를 들어봤다.

Q.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5개 모두 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A. 네. 2005년도 상반기 취업에 전 삼성계열, SK계열, LS계열, 동부계열, 한국증권 등 5군데에 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스펙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지방대 학벌에 학점도 4.0이 안 됐고, 토익도 700점대였습니다. 서류를 통과한 6곳 중 한 곳은 필기전형으로 떨어졌고 다섯 곳이 최종까지 가서 합격한 것입니다. 면접전형에서 100%의 성공률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Q. 취업에 성공한 특별한 전략이 있었나요?

A. 저의 전략이라 한다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토론, PT가 많은 수업에 적극 참여했고,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취업캠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또, 가고 싶지 않은 회사라도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임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하는 연습의 장으로 삼았죠.

Q.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 주세요.

A.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지방대라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기회가 없어’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사실 기회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널려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학교는 취업에 대해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1학년 때부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전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모두들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과 동문이 함께하는 대학

- 전북대학교의 든든한 후원자

전북대학교가 발전한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는 든든한 후원자가 함께하고 있다. 전북대학교를 모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적 환경을 지원해 주고자 졸업한 동문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전북대학교에 각 기업에서도 후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동문과 지역 기업체들의 기부와 정부 신축 예산 등의 확보를 통해 외형적인 성장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명실상부한 동북아중심대학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대학 동문의 기증 및 운영비 100년간 매년 1억 원 지원

상대의 견지헌, 법대의 정연학사, 사회대의 등용재, 공대의 기연학사, 영상학습실 등 각 단과대학에 위치한 각종 시험 준비반을 통합한 '우림인재등용관'이 지난해 완공돼 현재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우림건설의 심영섭 대표가 35억 원 상당의 우림인재등용관을 건립, 기증한 결과로 향후 100년간 운영비로 매년 1억 원씩 총100억 원의 기탁을 약속했다.

우림인재등용관은 총 870평 규모에 열람실과 동영상 강의실, 스터디룸, 강의실, 휴면실 등 이동 공간 활용을 고려한 과학적인 설계를 통해 건축되었다. 총 40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게 될 우림인재등용관은 고시 및 자격증 시험 준비반 운영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 로스쿨 전북대가 주도, 성원법학전문도서관 ||

성원건설, 법학전문대학원 신축·기증

전북대학교의 로스쿨 유치를 위해 성원건설이 힘을 보탤다. 성원건설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로스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북대학교에 법학전문도서관을 신축, 기증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체결한 전북대학교와 성원그룹의 법학전문도서관 신축 및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는 전라북도과 전북대학교의 숙원사업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성원그룹이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성원건설은 1층에 대한 보수와 2~6층을 증축하여 법학전문도서관을 신축하게 되며, 기존 시설 구조 보강·보수 및 증축공사비 32억 원 상당을 전액 부담하고 완공 시 전북대학교에 무상 기증하게 된다. 성원그룹의 법학전문도서관 기증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로스쿨이 꼭 전북대학교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염원이 담겨 있다.

|| 국내외 학자들의 영빈관, 훈산건지하우스 ||

지역 기업, 제일건설 후원으로 개관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가 지난 2월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했다.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는 총 공사비 28억 6천만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393㎡(724평)에 지상 5층으로 건립되었으며 (주)제일건설이 14억 3천만 원을 부담했다.

훈산건지하우스는 외국인이나 유학생, 외부 강사들에게 숙소로 제공되며, 전북대학교를 찾는 외부 손님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대학이미지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훈산건지하우스는 일반 객실 47실(동돌 10, 침대 37), 가족실 2실, 카페테리아, 비즈니스 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숙박료는 전북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경우 일반실 3만 5천 원, 가족실 6만 원이고, 학교 행사를 위해 찾아온 일반인에게는 일반실 7만 원, 가족실 12만 원이다.